

한국 현대 로고시즘(Logos-ism)미술의 지평

오의석(대구가톨릭대 환경조각과)

1. 서론; 로고시즘 미술이란 무엇인가?

로고시즘(Logos-ism)은 로고스(logos)¹⁾와 이즘(ism)의 합성어로 '문자주의', '말씀주의' 등으로 직역이 가능한 용어이지만 아직 사전에 등재 되어 있지 않은 단어이다. 신학적으로는 '로고스'를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이념화될 수 없는 절대개념으로 보면서 '로고시즘'의 사용을 극히 자제해 왔다고 생각되며, 미술에 있어서 로고스는 파토스(pathos, 情愴)와 대응적 개념으로 '이성', 또는 '논리'의 의미로 종종 논 의되고 다루어져 왔지만 '로고시즘'이란 명칭으로 그 일련의 작업을 규정하며 다룬 경우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로고시즘은 말씀(Logos)의 체현이란 관점에서 작품 이미지(Image)를 해석하는 연구자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으며, 미술에 있어서 로고시즘은 로고스 곧 말씀이 물질과 형태로 체현(體現)된 미술을 의미한다. 로고시즘은 성경의 말씀 속에서 기초를 찾아볼 수 있는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창 세기의 기사, 말씀이 명하는 바에 따라 지어진 성막과 성전,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온 성육신(incarnation) 의 사건이 말씀(Logos)의 체현으로서 로고시즘 미술의 정초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관점에서 로고 시즘은 기독교 미술과 문화에 대한 단순한 대응어가 아니라 형상을 다루는 기독교 미술의 본질이며 기 독교 시각문화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미술과 문화는 말씀의 기초 위에 지어지는 집이라 할 수 있다.(마 7: 24-27) 말씀의 체현으로서 로고시즘은 기독교 문화의 집이 그 기초만을 말씀에 두고 있 는 것이 아니라 집 전체가 말씀으로 지어져야 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체현(體現, embodiment)이란 말 씀이 표면적으로 옷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형상과 질료 자체로 변화되어 지는 것을 뜻하기 때

1) 로고스(logos)는 철학에서 우주의 법칙, 우주를 지배하고 전개시키는 일정한 조화와 통일이 있는 이성 적 법칙을 말한다. 신학적으로 로고스(Logos)는 예수그리스도로서 인간이 되어 말한 하나님의 말씀,, 삼위일체의 제2위인 성자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Random Hous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참조)

문이다.

로고시즘 미술은 한 때 형상(Image)을 통해서 말씀(Logos)을 대신한 서구의 기독교 미술에서 한 축을 형성했던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20세기 이후, 현대 기독교 미술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도 그 표현의 형식과 주제를 달리하면서 면면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며 경향으로 볼 수 있다. 말씀을 형상으로 체현하는 로고시즘은 문자적인 말씀을 시각적으로 전환하는 직설적인 체현에서부터 말씀이 가지는 정신적 의미와 가치를 추상적인 형태와 재료로 담아내는 작업, 그리고 말씀이 요구하는 어떤 행동성을 작업과 전시를 통해 구현하려는 시도 등, 다양한 체현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2 한국 로고시즘 미술의 전개

로고시즘 미술은 말씀의 기초위에 세워지는 시각문화의 집으로서 말씀의 전파와 선교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이다. 한국의 로고시즘 미술 역시 한국교회의 부흥에 힘입은 바가 크며 경제의 성장과 미술문화의 전체적인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로고시즘 미술은 크리스천 미술 작가들에 의해 기독교 미술 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의 로고시즘 미술은 매우 역동적인 모습으로 다양한 전개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수 년 전부터 크리스천 아트 페어(Christian Art Fair)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고, 최근엔 건전한 기독교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포럼으로 'Auction경매 +Cristianity기독교 =?' 가 개최되기에 이르렀다.²⁾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에 대해서 기독교 미술까지도 시장의 논리에 지배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포럼에 참여한 강사진의 발표 내용도 대부분 크리스천 아트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경매를 통한 유통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독교 미술이 공급 과잉의 상태를 초래하였던 점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모색들을 통해서 로고시즘 미술의 소통과 확산에 기대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의 크리스천 아트의 공급과잉은 현상은 기독교 미술인들의 활발한 창작과 발표에 비해 그 작품들을 구입하고 소장할 감상자들이나 기관, 교회의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한국의 로고시즘 미술이 한국교회의 부흥과 현대미술계의 발전에 힘입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한국 교회의 로고시즘 미술에 대한 인식과 수용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고 로고시즘과 현대미술과의 관계에는 대립과 갈등의 요인이 많이 남아 있었다. 이런 이유로 로고시즘 미술의 판매와 유통, 소장은 교회와 미술계 어느 쪽으로도 활성화 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기독교 세계관을 공유하는 갤러리 협의체인 N.G.C.G 주최한 포럼으로 2007. 11. 12일 국민일보사 메트로 홀에서 열렸으며 갤러리 PM2, 빛 갤러리, 세오갤러리, 진흥아트홀이 협찬기관으로 참여하였다.

1) 한국교회와 로고시즘 미술

말씀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씀으로 기록되었다. 작가들은 그 이야기에 다시 형상의 옷을 입힌다. 그 것이 과연 말씀의 실체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교회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오늘의 크리스천 작가들에게도 계속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시각적인 형상을 통해 로고스가 가진 소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가 하면 로고스를 형상화 하는 것은 로고스의 실체를 왜곡하고 변형하는 위험한 일로 여기는 이들도 있다.³⁾

현대 로고시즘 미술에서 외형적으로 성화상 논쟁을 재연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작가들은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선택을 요구받는다. 한국의 개신교는 개혁주의의 전통 속에서 말씀을 중심에 두고 있으며 시각이미지의 사용을 극히 자제해 왔고 이러한 흐름은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크리스천 작가들 중에는 교회의 시각 이미지에 대한 부정과 경계의 입장에 대해 섭섭해 하거나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천주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형상 이미지에 대해 냉담한 개신교회의 입장을 비판하거나 개신교회 안에서 음악이 애호되고 많이 사용되는 것과 비교하여 미술의 소외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개신교회는 외형적으로 시각 이미지를 교회 안에 품는 일에 소극성을 보여왔지만 오히려 작가들의 삶과 작업에 말씀의 적실한 말씀을 공급하고, 작가들의 신앙을 자라게 함으로써 로고시즘 미술에 보다 큰 영향을 끼쳤다. 많은 작가들의 관심을 '교회 안으로' 끌어 들이기보다 '세상 속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로고시즘 미술의 내용이 더욱 다양하고 풍성하게 자라갈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 로고시즘 미술의 전개와 현장을 다루는 다음 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한국 현대 로고시즘 미술이 교회 안에 머물기 보다는 대학의 캠퍼스와 미술계의 화랑과 거리와 광장, 지구촌 여러 나라의 선교지에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로고시즘 미술의 장을 확장하는 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한국교회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부흥과 성장이 있었고, 특히 젊은 크리스천 작가들에게 있어서 캠퍼스 선교단체의 말씀을 통한 양육과 훈련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로고시즘 미술의 열매를 품고 거두는 일에는 소극적이었지만, 로고시즘 미술이 꽃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크리스천 작가를 키우고 영양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함으로써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한국 현대미술과 로고시즘

한국의 로고시즘 미술의 역사는 서구에 비하여 매우 짧고 현대미술의 역사 또한 그렇게 때문에 이

3) 오의석, '말씀이 체현된 화면의 신비-구속현의 로고시즘' NEW LOOK. 2007, 7-8, pp.

들은 거의 동시대적 미술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양자가 지향하는 정신성의 측면에서는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갈등과 대치적 상황이 예견되고 지속되어 왔다.

미술사에서 현대성의 연원은 인상주의나 낭만주의, 혹은 르네상스로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지만 어찌하든 현대미술의 출현의 철학적 배경을 플라톤-기독교적 인간관의 외해로 인한 새로운 인간관의 대두, 곧 세계의 중심으로서 인간의 정신을 자각한 근대적 사고로 보는 것을⁴⁾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미술 속에서 로고시즘의 미술은 그 형식과 기법을 현대적이고 첨단적인 어떤 것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근대적인 어떤 것으로, 시대착오적인 어떤 진부한 유형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을 피하기 어려운 일면이 있다.

또한 한국 현대미술의 주요 과제로서 어떻게 한국성과 전통성, 지역성을 세계성과 현대성으로, 국제성으로 체현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모색하고 있던 한국적 상황에서 서구의 오랜 전통 속에 확립된 것으로 보이는 로고시즘 미술의 현시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에 뿌리를 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한국 현대미술의 일반적인 성향에 반하여 서구의 전통과 유산을 한국화하려는 노력으로 비쳐졌던 것이다. 현대미술이 이러한 한국적 상황 속에서 양자의 엇갈린 지향성은 상충될 수밖에 없었고 서로간의 소통은 매우 어려운 것이 되고 말았다. 현대미술계에서는 로고시즘 미술을 특정종교의 진부한 부산물 정도로 폄하하면서, 접근 불가능한 영역으로 여기는 반면, 로고시즘의 미술가들은 현대미술의 위선과 허식, 그 황폐한 상황에 대해 지적하며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서 자신들의 작업을 추구해 갔던 것이다.

현대예술에서 신(神)이나 종교적 담론은 이미 그 빛을 잃은 지 오래고, 모더니즘의 환상이 깨어진 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위세 속에서 미술은 그 스스로를 종교로 군림하며 양상을 보여왔다. — 종교적 열정의 시대가 떠난 바로 그 자리에 무의미하고 작위적인 형식 실험에만 집착하거나, 지극히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신화, 혹은 주술 등을 대체해 놓았다.⁵⁾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을 상실한 현대미술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일찌기 프란시스 웨퍼는 절망의 경계선을 통과한 문화 현상으로 진단한 바 있다. 여기서 로고시즘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현대미술로서 소통되기 바라는 크리스천 작가들의 작업은 매우 어려운 국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일부의 작가는 분리적인 입장에서 현대미술을 적대시하며 로고시즘의 역사적 전통 안에서 머무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주저하며 현대미술의 사조에 편승하여 성공을 추구하기도 한다. 바람직한 입장으로는 현대미술을 변혁의 장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형식과 양식을 적극 수용하며 활용하는 가운데 말씀의 체현체로서 작업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 기독교미술이 지닌 정체성의 핵심을 말씀의 체현이라는 관점에서 로고시즘으로 파악하고

4) K. 해리스, 오병남, 최현희 역, 현대미술-그 철학적 의미, p.1

5) 윤영화, '현대미술에서의 기독교미술의 모색, 기독교와 현대미술 세미나(2007, 진흥아트홀)p.28

발제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현대미술에 대한 분리적인 태도나 동일시의 입장을 지양하고 기독교 미술과 현대미술이 소통하기 위한 것이고 그를 통해 통한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3) 한국 로고시즘 미술 공동체의 활동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 그리고 한국현대미술 문화의 발전에 힘입어 함께 성장해온 로고시즘 미술은 그 양자로부터 소외와 압박을 동시에 받으면서 자신의 길을 모색해 와야만 했다. 교회와 미술계의 사이에 위치하면서 크리스천 작가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작업과 작품을 말씀과 신앙에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온 기독교미술단체와 협회, 그룹들이 있다. 이러한 로고시즘 미술 공동체의 활동은 로고시즘 미술의 성장과 부흥에 결정적 요인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소수의 크리스천 작가들에 의해 신앙고백적인 개인 작업들과 교회의 필요 또는 요청에 의해서, 특히 토착화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던 한국 초기의 로고시즘 미술이 한국현대미술 속에서 하나의 단체를 이루며 운동으로 시작된 기점은 1966년 기독교미술협회의 창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기독교 미술가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국제적인 기여와 미술인 상호의 친선과 협력을 목적으로 네 개 영역의 주요 사업으로 창작활동, 기독교미술 연구, 출판 및 계몽, 국제미술교류에 관한 사업을 계획한 협회⁶⁾ 창립전에서부터 3회전까지 기톨릭 작가들이 함께 전시를 가졌고 후일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의 이름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9년 '원곡. 헤촌 미술상을 제정하였고 두상을 통합하여 협회상으로 시상하다가 20주년이 되는 1986년부터 대한민국기독교미술상으로 다시 제정하여 매년 시상해 오고 있다. 공모전으로 성화대전을 1984년부터 수회에 걸쳐 운영하였고, 1985년에는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 국제기독교미술전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하였다. 동양화, 서양화, 공예, 조각, 서예의 창작과 발표 중심이 분과활동에서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면서 2006년 크리스천 미술평론가 그룹을 중심으로 이론분과를 발족하게 되었으며 기독교미술에 관한 학술이론지⁷⁾의 발간을 시작하고 로고시즘 미술연구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 로고시즘 미술은 1990년대에 들어서 활발한 양상을 보여주며 다양한 전개의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미술인선교회가 조직되어 대한민국기독교 미술대전을 운영하게 되었고, 젊은 크리스천 작가들을 중심으로 기독교미술연구회를 비롯하여 각 대학의 캠퍼스에 크리스천

미술동아리 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기독교미술에 대한 창작과 연구의 열기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⁸⁾ 이러한 미술대학안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헌신된 미술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통한 사역의 모델들을 찾고자하는 관심에 노력에 힘입은 바가 컸다. 기독교미술연구회를 중심으로 미술대학의 크리스천 동아리는 점차 연합체적 성격의 아트캠프와 수련

6) 서봉남, '한국기독교 미술30년'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30년사. p 55

7)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이론분과, Pro Rege'영광스런 극장 안에서', 예서원, 2006

8) 엑수시아, 미크모, .C.C.F(서울), Flowing(광주), 익투스(부산), 블리스, 꼬미노페(대구) 등

회등을 통해 미술의 이론과 창작에 대한 연구와 훈련의 기회를 공유하게 되었다. 점차 작가들은 단체전이 아닌 개인전을 통해서도 신앙고백과 선포적 이미지가 선명한 작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기독교 예술과 문화에 관한 출판의 사역도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예고하듯 1993년 통합연구 봄호(통권 18호)는 '기독교 미술의 원리와 과제'를 특집으로 다루면서 국내외의 기독교미술계 원로에서부터 신진 연구자의 연구 논문을 실었다. 1995년 한국미술인선교회는 '기독교미술과 선교'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연구 발표된 논문들을 <기독교와 미술, 예영 1996>로 출간하였는데 필자의 논문 '창조 · 타락 · 구속의 미술'은 미술을 기독교 세계관의 시각으로 조명하는 것으로 그 결론을 10개항의 '기독교미술선언⁹⁾'으로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로고시즘 미술의 방향성을 찾아 모색하고 세워가기 위한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과 함께 1990년대 후반부터는 기독교미술전문 갤러리와 전시 공간이 운영되기 시작하여 작가들의 전시와 발표를 돕고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로고시즘 미술을 위한 전시 공간은 점차 수도권과 지역의 대형교회와 문화적 관심이 높은 교회들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 조성되어서 작가들의 전시를 지원하고 교회의 문화적 필요를 채워가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페스티벌(2004, 대구/ 2006, 서울)은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제주 등 가 지역으로 확산된 미술인 단체들이 연합하여 만든 축제적인 행사로 2년마다 각 지역의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전시회이다. 전국적인 연합의 행사로는 각 대학 캠퍼스의 기독교미술동아리들이 방학에 함께 참여하는 크리스천 대학생 아트캠프가 있다. 현대미술계 안에서 청년 크리스천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서로간의 작품세계를 나누며, 선배작가들의 권고와 지침을 들으며 그들의 작업세계를 살펴보는 이 캠프를 통해서 주목받는 젊은 작가들이 배출되고 있으며, 그들의 활동은 캠퍼스를 떠난 이후로 계속 이어져서 청년 로고시즘 미술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이 젊은 작가들이 보여주는 로고시즘의 특징은 그 활동의 장을 교회와 기독교미술계가 아닌 현대미술의 현장으로 설정하면서 작업의 내용도 말씀의 직접적인 체현보다는 말씀의 정신과 태도에 입각해서 자유로운 작업을 펼쳐 보인다는 점이다.¹⁰⁾

9) 한국미술인선교회 편, 기독교와 미술, 예영, 1996, pp195-197

10) 오의석, '청년 로고시즘의 지평' (Young Artist 展 (2007. 9. 11-22, 문 갤러리) 평문

말씀과(Logos)과 형상(Image) 사이에서 부단히 자신의 길을 찾는 젊은 작가들, 그 말씀 때문에 이웃한 젊은이들이 누리는 무한의 자유와 방향을 포기한 이들에게 나는 갈채를 보낸다. 좁은 문, 좁은 길이다. 세상과 역행하며 작업을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안다. 그 만큼 이들의 선택은 귀하고 값지다. -중략-

청년 로고시즘! 'Young Artist'전에서 나는 희망을 본다. 이 젊은 작가들이 내보이는 다양한 형상 속에는 예외 없이 말씀(Logos)의 체현(體現)이 있다. 말씀을 형상으로 시각화하는 직설적인 체현의 작업에서부터 말씀이 가지는 정신성을 상징과 은유로 빚어내는 작품, 말씀이 명하고 지시하는 행동성을 작업을 통해 구체화하는 작가들에 이르기까지, 이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작품의 소재나 주제이기 보다는 작업의 정신과 자세로 나타나고 있다.

말씀을 좇아 나선 이 젊은 작가들은 이제 형상의 세계로부터 결코 도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매체를 통한 창작과 형상을 빚음에 말씀이 녹아지고 배어들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미술세계의 변혁을 꿈꾼다. 이미 좌표를 상실해버린 오늘의 미술계와 점점 부패의 지수가 높아져 가는 이미지의 세계에, 말씀의 기초 위에 형상의 집을 짓는 이들의 지향이 새로운 청량제가 되었으면 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 로고시즘 미술의 전개는 전문 미술교육기관과 과정을 통해 한 층 강화되고 심도 있는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전기를 맞는다. 기독교미술전문대학원 과정의 개설과 기독교미술전공 학부 과정이 일부 기독교 대학에서 열려지게 된 것이다. 로고시즘 관련서적의 출간도 그 간의 번역서 중심에서 벗어나 한국의 현대 크리스천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조명한 저서들이 출간되기 시작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¹¹⁾

또한 한국교회의 해외선교에 대한 열기에 힘입어 미술선교에 대한 깊은 관심들이 나타나면서 해외의 여러 지역에서 KAMAN(Korea Art Mission for All Nations)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몇몇 교단과 단체에서는 미술선교사를 세워서 사역하며 후원하는 일을 통하여 한국 로고시즘 미술의 영역을 국내외로 넓게 확산시키고 있다.

한국의 로고시즘 미술은 1960년대부터 하나의 공동체적 운동의 성격을 띠면서 약 40년의 역사 가운데 크게 부흥하였고 성장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성장의 일차적인 동인은 한국교회의 부흥과 경제 성장 이었고 그리고 현대미술문화의 발전에 힘입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로고시즘 미술에 대한 소극적 입장과 현대미술과의 대립적 구도 속에서 한국의 로고시즘은 광야의 미술처럼 어렵게 전개되었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넘어설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은 로고시즘 미술공동체인 기독교미술단체의 협회, 그룹의 활동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로고시즘 미술의 성장에 장애요인 이라고 여겨져온 교회의 무관심성과 소극성, 그리고 현대미술과의 마찰과 대립은 오히려 로고시즘 미술의 공동체적 자생력을 키워 주면서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모습의 로고시즘 미술을 가능케 했으며 그 활동의 장을 폭넓게 확장시킨 긍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한국 현대 로고시즘 미술의 현장

사례1)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개인전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며 작업하는 한 선배 조각가는 2004년 4월 문예진흥원에서 기획 초대한 중진 작가 개인전에 십자가와 주제로 다루었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라는 작품전의 주제 밑에서 그의 작품 전체는 바로 고난의 형적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나이 50을 넘긴 중년의 작가가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히고 오직 복음의 증거와 현시를 위해 작품 전체를, 그리고 주목 받는 전시의 기회를 그 분과 우리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놀라웠다. 작가의 뜨거운 열정은 진리와 복음의 절대성 앞에서 그 모든 가능성이 얼어붙고 십자가 형상만이 마음의 심비에 피어오르던 우리의 청년기를 떠올리게 한다. 이러 저런 이유와 고상한 수식어를 앞세우면서 그 시절의 생경하고 청정한 빛을 잃어 버린 오늘의 내

이 청년 로고시즘(Logos-ism)이 우리 시대 미술의 회복을 위한 하나의 대안임을 의심치 않는다.
11) 서성록, 2003. *Art & Christ, 꿈꾸는 손-한국의 크리스천 미술가들*. 서울:미술사랑.
오의석, 예수 안에서 본 미술, 홍성사, 2007

작업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선배가 들고 나타난 순수 복음적 조형은 모두에게 충격이었고, 후배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라는 신호이기도 했다.

사례 2)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화가

평창동 가나 아트센터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만물을 바라보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중진 동양 화가의 개인전이 열렸다. 언젠가 작가의 열린 강의에 숨어들어서 후학들에게 전하는 그의 지난 이야기를 경청한 적이 있다. 그가 '생명의 노래'를 부르게 되기까지 얼마나 멀리 방황하였으며, 그 분과의 힘겨루기로 젊음을 소진하였는지, 그러던 그를 하나님은 얼마나 모질고 호되게 다루셨는지, 한 작가의 눈과 귀가 열려지기까지, 그래서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미술관으로 인식하고 선언하게 되기까지 치른 엄청난 고통의 양과 무게 앞에서 나는 질식할 것만 같았다. 그리고 두렵기도 했다. 한 믿음의 작가를 빗어내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듣고 나니, 믿음으로 대단한 작업을 꽃피워보리라는 열망을 접고 싶었다. 그 일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 날 이후로 나는 작가의 화면 위를 날고 있는 한 마리의 나비를 쉽게 보아 넘길 수 없게 되었다.

사례3) 중국 작가 2인의 초대전 -문화 교류의 장

중국에서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듣고 현재는 서울과 파리에서 유학하고 있는 크리스천 신예작가 2인의 전시 <The Souls of New Chinese Artists>가 진흥아트홀의 기획 초대로 이루어졌다. 그 중에 한 작가는 <화해>라는 제목으로 '문'을 그린 연작을 보여주었다. 불우한 과거의 기억과 화해를 이루지 못해 온 자신에게 그림 속의 문은 화해를 이루는 통로로 역할하고 있었다. 크리스천의 작업이 치유와 회복의 한 과정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중국에서 처음 대했던 그의 그림들보다 화면이 무척 밝아지고 있었다. 그들이 이국의 문화와 대학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학하며 훈련받고 있는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한국 기독교 미술계와 교회가 그들에게 전시라는 형식으로 배분 작은 후원과 보살핌이 그들의 조국 중국과 또 다른 땅에서 어떤 열매로 나타날 것인지 기대를 갖게 한다.

사례3) '새 생명의 빛'전, 미술 선교의 현장으로

앞서 소개한 두 중국화가의 초대전시를 유치하고 후원한 진흥아트홀의 관장님은 두 작가의 전시 오프닝을 마치자마자 서둘러 공항으로 떠났다. 그가 이끄는 KAMAN 태국 부활절 기념 예술제 <새 생명의 빛 전> 자료를 손에 쥐어 주면서 중보의 기도를 부탁했다.

<새 생명의 빛>이 태국 땅을 비추소서

한국 기독 예술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인 예술로 태국의 친구들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보다 기쁘고 아름다운 것으로

함께 가꾸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태국 땅에 함께 하소서 -작품집<새 생명의 빛>, 단장 인사의 글

1999년 봄, 수채화가인 그 분과 함께 중국의 쿤밍에서 열린 I·F·A(국제예술축제) 미술전에 다녀오면서 미술을 통한 선교의 열정에 크게 감명된 바 있다. 그 후로도 미국으로, 캐나다로, 동남아로, 연변으로 미술 선교 여정은 계속되었고, 필자에게도 동참을 권한 적도 여러 차례였다. 미술을 통한 단기 선교의 모델로서 그의 사역과 나눔은 크리스천 작가들에게 늘 신선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사례 5)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페스티벌 - 연합과 축제의 힘

2004 부활절 기념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 페스티벌은 서울, 청주,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제주, 전국에서 활동하는 160명에 이르는 크리스천 작가들이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벌인 미술 축제였다. 대구 기독교미술인협회의 주관으로 열린 행사는 많은 후원단체와 지역 책임자들의 협력 속에 이루어졌고 개막식에는 미술계와 교계의 많은 인사들이 모습을 나타냈다. 그에 앞서서 국제 회의장에서는 기독교미술 세미나가 열렸는데 '한스 로프마커의 예술의 이해¹²⁾와 '알프레드 뒤러의 신앙과 예술¹³⁾이 초청 강사들에 의해 조명되었다. 이제 대한민국 땅에서 크리스천 미술인이라는 위치는 결코 외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동료작가가 있고 함께 참여하는 전시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미대 캠퍼스마다 기독교학생들의 모임이 이뤄지고 각 지역에서 미술인 모임이 커가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이제 조직화되고 세력화 되어지는 것을 조심할 때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사례 6) 환경조형; 소통과 섬김의 장으로

지난 4월 조각가인 나는 무엇을 했나? 158점의 크리스천 아트 페스티벌에 출품작 가운데 한점의 소품 <공명의 쉽>를 제작 출품했다. 출품작 가운데 유별하게 작품 좌대의 하단에 설명문을 붙였다. 대중과의 소통과 섬김에 마음이 쓰였기 때문이었다.

높이를 달리하는 다섯 개의 기둥이 위로 솟아오르고, 기둥과 연결된 세 개의 원호 위에는 열두 개의 앓을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심과 공원, 아파트 단지의 광장 등에 놓여지고 사람들이 둘러앉아 쉬면서 감상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 작품이 오 대륙과 열두 제자의 공동체를 상징한다는 해석과 의미 부여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가 나무에 깃들 듯이 사람들이 조각 안으로 찾아들고 그 위에서 잠시 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작품을 밟고 뛰면서 그 안에서 놀 수 있다면 더욱 기쁠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조각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이웃을 품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¹⁴⁾

12) 정성구, 기독교 세계관과 미술-한스 로프마커의 예술 이해-, 크리스천아트페스티벌 도록 pp.117-118

13) 안용준, 알프레히트 뒤러의 신앙과 예술, 크리스천아트페스티벌 도록 pp. 119-126

14) 오의석, '거리의 조각 II' 발췌 수정, 홍성사 '꿈' 회보, 2004. 1월.

사례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 미술선교사의 요청과 도전

2004년 부활절을 기념하는 많은 전시들이 마무리된 4월 말, 프랑스에 미술선교사로 파송되어 사역하는 박선교사의 선교소식지가 도착했다. 부활절을 기해서 현지의 종합병원에서 예정된 전시회, 파리 벨 빌르 교회의 연합전시회, 프랑스로(CAEF) 지도자 대회에서의 전시회 등 현지에서의 바쁘고 급박한 사역 소식을 전해 오고 있었다.

프랑스의 영적 필요를 보고, 복음을 들고 간 미술 선교사의 사역보고는 늘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의 요청 속에서는 복음의 외형은 있으나 그 본질을 잃어버린 현지의 딱한 사정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나고 있다. 소위 예술성의 추구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 작가들이 힘을 소진하고 있으며 서구의 미술문화를 배워 수입하기에 허덕이고 있는 현지의 유학생들과 미술인들의 모습을 보는 한 미술선교사의 가슴은 더없이 답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상의 사례들은 2004년 4월 부활의 절기를 전 후로 약 한 달 동안 이루어진 한국의 크리스천 미술인 작가들의 전시와 활동들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말씀에 대한 동일한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펼쳐 보이는 작품과 작업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고 풍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작품이 어떤 이에게는 말씀의 복음의 증거와 선포로서, 또 다른 이에게는 진리 안에서 누리는 미적 자유로서, 때로는 내적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선교의 효과적 도구와 방법으로 일조를 하기도 한다. 연합과 축제를 통해 공동체적 운동으로 힘을 모으기도 하며 이웃을 품고 섬기기 위한 조형적 노력을 보여 주기도 한다. 미술 선교사가 되어 타문화권에 거주하면서 작품과 전시를 통한 복음의 사역과 영적 도전에 헌신한 경우도 있다.

동일한 신앙 안에서 그들이 취하는 몸짓은 각기 다르다. 그들의 작업 속에 나타난 말씀의 체현은 매우 다양하다. 흔히 감각주의 영성으로만 그들을 재단하려 드는 것은 오산이다. 그들 가운데는 참여와 대결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주의자도 있고 신비와 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주의자도 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영성가가 있는가 하면 이웃 사랑과 섬김에 관심을 갖는 박애주의자도 있다.¹⁵⁾ 그래서 크리스천 미술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흥미롭고 신나는 모험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미술은 신앙으로 인해 결코 매마르거나 고갈되지 않는다. 오히려 작업 속에는 말씀이 풍부함과 다양한 색깔이 무궁히 배어 나온다. 결국 그들의 작품은 이 땅을 장식하는 한점의 거대한 모자이크를 이루고 있다.

결어: 왜 로고시즘인가?

말씀의 체현으로서 로고시즘 미술은 성경의 말씀에서 그 기초를 찾을 수 있다. 로고시즘은 기독교 미술과 문화의 단순한 대응어가 아니라 기독교 미술문화의 정체성을 적실하게 드러내는 말로서 오랜

15) Gary Thomas, 윤종석 역,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CUP, 2003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현대미술의 현장 속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다.

로고시즘은 문자적인 말씀을 시각적 이미지로 직역하는 성향의 작품만이 아니라 말씀이 지닌 정신성을 이미지로 드러내는 작업, 그리고 말씀이 요청하는 다양한 국면의 행위들, 곧 고백, 예배, 전도와 선교, 구제, 중보, 치유 등을 작품의 창작과 발표를 통해 구현하려는 노력에 이르기까지 로고시즘의 미술의 범위는 넓게 확대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말씀의 체현이란 시각에서 기독교 미술의 정체성을 찾고 세워가려는 시도는 현대 기독교미술이 특정한 종교미술로서 가지는 한계와 틀을 깨고 미술계의 열린 소통의 장으로 나와서 하나의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서 일반 감상자들도 기독교 미술에 대해 가지는 선입관을 버리고 보다 쉽게 접근하여 감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현대기독교미술이 로고시즘이란 정체성과 진정성을 통해서 미술계와 대중들에게 보다 쉽게 소통하고 종교와 예술 본연의 친화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현대의 기독교미술을 하나의 종교적 미술이라는 범주에 가두어 놓지 않고 로고스의 다양한 체현 가능체로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로고시즘과 같은 접근의 연구 사례를 통해서 형상세계를 조망하는 시각과 인식을 보다 진지한 성찰의 태도로 전환시킬 수 있었으면 한다.

현대 기독교 미술에 대한 이해를 로고시즘이란 맥락으로 접근한 본 연구는 미술교육에 있어서도 하나의 독특한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으며 미술교육의 현장에서 종교와 미술의 소통 관계를 회복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연구를 통해서 형상세계에 미치는 로고스의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확인과 제공되는 풍부한 사례들은 로고시즘 미술교육과 창작이라는 새로운 교육적 자원과 콘텐츠를 형성하고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로고시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창작과 실습의 축적은 로고시즘 미술교과, 전공의 개설, 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용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 김병중 외. 1996. *기독교와 미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김영한. 1992. *한국기독교 문화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 서성록. 2003. *Art & Christ, 꿈꾸는 손 한국의 크리스천 미술가들*. 서울: 미술사랑.
- 서철원. 1992. *기독교 문화관*.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 문화연구소. 1987. *한국기독교와 예술*. 서울: 도서출판 풍만.
- 오의석. 2006. *예수 안에서 본 미술*. 서울: 흥성사.
- 오의석. 2003. *말씀과 형상(LOGOS & IMAGE)*. 서울: 진흥아트홀.

- 오의석. 1995. 부활의 조형-산업오브제와 고철에 의한 조각 작품 제작 연구 *산업미술* no.5. 대구:효성여자대학교 산업미술연구소
- 오의석. 1993. 현대 기독교 미술과 세계관. *통합연구* 통권 18호. 대구: CUP.
- 오의석. 1992. 성경적 조형관. *통합연구* 통권 14호. 대구: 통합연구학회.
- 오의석. 2000. 한국 현대조각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의 양식적 특성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제10집* 한국미술교육학회.
- 윤영화. 2003. *聖과 현대미술*. 부산:고신대학교 출판부.
- 이은주. 2007. 말씀의 체현으로서 오의석의 조각 이미지 연구. *통합연구* 통권 47호. 서울:통합연구학회.
- 최태만. 1995. *한국조각의 오늘*. 서울: 한국미술연감사.
-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이론분과. 2006. *Pro Rege-영광스런 극장 안에서*. 서울:예서원.
- Gerardus van der Leeuw, 尹以欽 옮김. *종교와 예술*. 서울:열화당.
- Francis A. Schaeffer, 김진선 옮김. 2002. *예술과 성경*. 서울:IVP.
- Rookmaaker H. R, 김현수 옮김. 2002. *예술과 그리스도인*. 서울: IVP.
- Rookmaaker, H. R, 김유리 옮김. 1993. *현대 예술과 문화의 죽음*. 서울: IVP.
- Veith jr. Gene Edward. 오현미 옮김. 1994. *그리스도인에게 예술의 역할은 무엇인가*. 서울:나침판.
- Weber, Robert E. 이승구 옮김. 1989. *기독교 문화관*. 서울:엠마오.
- Apostolos-capadona, Diane. 1992. *Art, Creativity, and Sacred, Crossroad*.
- Begbie, Jeremy. 1991. *Voicing Creation's Praise*, T&T Clark.
- Dyrness, W.A. 1979. *Christian Art in Asia*, Editions Rodopi N.V.
- Ferguson, George. 1954. *Signs & Symbols in Christian Art*, Oxford University Press.
- Niebuhr, H Richard. 1951. *Christ and Culture*, Harper Torch books.
- Veith, Jr. G. E. 1991. *State of the Arts*, Crossway Books.